변이음 규칙에 관한 연구

천 강 우*

<목 차>

1. 서 론

언어세계는 물리적, 객관적, 연속적인 것 보다 지각적, 주관적, 비연속적인 면이 우선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인데 "생각하는 것"이란 것도 여러 수준(level)이 있게 마련이다. 음운론에서 우리의 관심은 언어학적으로 유의미한 음성적 차이이며 이것이 각 언어를 특징짓는다.

1.1 연구의 목적

한 언어에서의 형태소나 발화는 반드시 그 언어의 음소에 의해 나타날 수 있고 하나의 음소는 음성적으로 유사한 몇 개의 변이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막상 phoneme이나 allophone의 정확한 규정은 자주 유보되어 왔으며 그들과 관련된 규칙도 그 추상성(abstractness)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다.

실제로 성대를 통해 발음되는 것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그때 그때의 음인데 가령 무한히 많은 서로 다른 p음의 실현을 편의상 몇개의 좀 더 추상적인 하위범주로 나눈 것이 allophone [p], [pʰ], [p˥][1]··· 등이며,

*동아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1]음소는 slanted line / /에, 음은 bracket [ ]에 넣는 것은 일반관례와 같다.

allophone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발음되는 실재가 아닌 더욱 더 추상적인 존재가 phoneme /p/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국어에서 몇 몇 자음과 모음의 allophone을, 그들이 나타나는 음운환경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 약간의 변이음 규칙을 수정해 봄으로써 영어 변이음과 국어 변이음의 차이도 발견하여 보다 더 일반적인 변이음 규칙을 세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2 연구 방법

2장에서는 먼저 allophone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고, 영어와 국어에서의 자·모음 allophone을 Francis(1958)와 허웅(1985)에서 비교 분석한다.

다음, Church(1983)을 중심으로 rule of flapping에서 변이음 규칙이 수정되어 가는 모습을 일별해 본 뒤 3장에서 마무리 짓는다. 그런데 영어에서의 rule of flapping과 국어에서의 그것과는 그것이 나타나는 조건이 다르므로 규칙적용이 제한되며 영어의 모음 [ɔ]는 국어의 모음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a]로 대체했음을 밝힌다.

2. 변이음 규칙

2. 1 변이음 개념

허웅(1985 : 83)은,

> "음소는 한편으로는 어떤 변이음들의 묶음이오, 한편으로는 변별적 바탕의 묶음으로서 다른 음소와 대립되어 있음이 그 본질이다."

하여 음소의 양면성으로서 변이음을 언급했다.

Francis(1958 : 122)는,

> "The different phone-types that make up a phoneme are called its members or allophones. An allophone, then, is a phone-type which belongs to a phoneme"

이라는 글에서 그러한 phone-type은 음성적으로 유사하고 상보적 분포에 있는 것이라 했다.

Schane(1973 : 5)은,

"... pin, ... spin, and ... nip. Although these are all occurrences of the same phoneme p, consideration of the actual articulatory implementations of this phoneme-its pronunciations-reveals that it has different phonetic variants or allophones."

이라 하여 allophone을 phonetic variants로 보았으며, Crystal(1971 : 77)은,

"Technically, in this approach, we would talk about the phoneme /l/ having two allophones [l] and [ɫ] Allosimply means variant of, in a particular position.

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위치를 언급했으며, Crystal(1985 : 13)에서는,

"The first relationship of this kind to be established was in phonology, viz. the relationship of allophones to phonemes. The phonemes of a language are abstractions, and the particular phonetic shape they take depends on many factors, especially their position in relation to other sounds in a sentence."

라 하며 음성적 환경에 염두를 두고 변이음을 설명한다.

Lass(1984 : 18)는

"These units, parallel on their level to morphemes on theirs, are phonemes, and the realizations of a phoneme are its allophones."

라고 정의했으며,

이정민 외(1987 : 72)에서는 allophone을,

"특정 음소를 구성하면서 조음적으로나 음향적으로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음 형태중의 하나. 기음을 수반하는 pin의 [pʰ]와, 기음을 수반하지 않는 spin의 [p]는 각각 동일 음소 /p/의 변이음이다. (변)이음은 하위음(submember), 조건 변이음(conditioned variant), 또는 위치 변이음(positional variant)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것은 그들이 나타나는 환경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나타남을 예측할 수 있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라고 했다.

이상의 몇몇 개념으로 미루어 볼 때 변이음은 첫째, 음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둘째, 환경에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동어반복이 될 지 모르겠으나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음성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음소의 구체적인 음성 실현."

2.2 자음 변이음

(1) 영어의 경우

① The voiceless bilabial stop, /p/는 주로 세가지 변이음을 가진다. Unaspirated [p], [p$^{=}$]는 어두[s] 뒤(예, speak)와 강세없는 모음 앞(예, happen)에 나타난다. Aspirated [p^{h}], [p^{c}]는 어두(예, people)와 강세있는 모음 앞의 음절 머리(예, apart)에 나타나며, unreleased [p^{ㄱ}], [p^{-}], [p$_{o}$]는 보통 어말(예, stop)에 나온다.

② The voiceless apico-alveolar stop, /t/도 변이음이 세개인데 분포도 /p/와 유사하다. [t]는 [s]뒤나 어말(예, street), 그리고 다음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될 때 음절 말미(예, outgo)에 나타난다. Phone-types [t̪], [t̬], [ṙ]등이 모음 사이에서(ambi-syllabic position) 나타나면 이들이 어느 음절에 속하는지 애매할 경우도 있다. (예, iritis)

③ The voiceless dorsovelar stop, /k/는 [k], [k^{h}], [k^{ㄱ}], [k^{N}], [k^{L}]등의 변이음이 있는데 그 분포가 역시 /p/의 변이음과 흡사하다. 또 [k̪]는 강세없는 모음 사이(예, significant)에서 들을 수 있어서 elegant의 [g]와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다.

④ The voiced bilabial stop, /b/는 [b, b^{-}, b̥, b^{N}, b^{L}]등의 변이음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 [b]는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른 것들과 자유변이(free variation)에 있다. 따라서 [b̥](더 정확한 표기는 [p͡b], 또는 [b͡p])는 어두나 어말에 나타나고, [b^{-}]는 어말이나 음절말(syllable-final)에, [b^{N}]과 [b^{L}]은 각각 비음(nasals)이나 측음(laterals) 앞의 음절말에 나타난다.

⑤ The voiced apico-alveolar stop, /d/는 [d, d^{-}, d̥, d^{N}, d^{L}]등의 변이음을 가진다. latter와 ladder 사이에 구별이 나지않는 방언에서 [t̪], [t̬], [r]은 /t/의 변이음 이라기보다는 /d/의 변이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⑥ The voiced dorso-velar stop, /g/도 /b/와 /d/처럼 [g, g^{-}, g̥, g^{N}, g^{L}] 등의 변이음을 동일한 분포에서 가지고 있다. 이들 모두는 인접모음에 따라 전설화 되든지 후설화 된다.

⑦ The lateral, /l/은 [l, ɫ, l̥]등의 변이음을 가지고 있다. [l]은 어두나

음절머리(syllable-initial)에서, 그리고 유성자음과 따르는 모음 사이에서 나타난다. [ɫ]은 어말이나 음절말, 그리고 모음과 따르는 자음 사이에서 나타난다. [l̥]은 유성자음과 따르는 모음 사이에서 나타난다.

⑧ The voiced apico-alveolar affricate, /ǰ/는 [ǰ, c͡ǰ, ǰ͡c]등의 변이음을 가진다. [ǰ]은 모든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데 머리부분에서는 [c͡ǰ]와,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jc]와 자유변이에 있다. 따라서 judge는 [ǰʌǰ], [c͡ǰ ʌj], 또는 [ǰ ǰ͡c] 같이 다양하게 발음된다.

⑨ The voiceless labio-dental fricative, /f/는 [f]와 [ɸ]를 변이음으로 가진다. 이중 [f]는 모든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comfort에서 보듯이 양순자음 뒤에서는 [ɸ]와 자유변이에 있다.

⑩ The voiced labio-dental fricative, /v/는 네개의 변이음 [v, β, f͡v, v͡f]를 가지고 있다. [v]는 모든 위치에 나타날 수 있고 머리부분에서는 [f͡v]와, 끝부분에서는 [v͡f]와, 양순음 뒤에서는 [β]와 자유변이에 있다.

⑪ 세개의 비음, 즉 the bilabial /m/, the apico-alveolar /n/, the dorso-velar /ŋ/은 각각 [m], [n], [ŋ]을 주 변이음으로 가진다.

⑫ The retroflex semi-vowel /r/은 어두나, /b/ 또는 /g/와 그 뒷모음 사이에서 변이음 [r]이 나타나고(예. red, brown, green), /p, f, θ, ʃ ɹk/와 그 뒷 모음 사이에서는 [r]이 무성짝 [r̥]과 자유변이에 있으며(예. present, shrink), /t/ 뒤에서는 [ɹ̥]이(예. trick), /d/ 뒤에서는 [ ]이 나타난다.(예. drunk)

그외 semi-vowel /w/는 [u̯, ʊ, o̞, w̥]를 /y/는 [j, i̥, I̯, e̞, ɛ̯]를, /h/는 많은 수의 변이음을 가진다.

(2) 국어의 경우

허웅(1985 : 162)은 국어의 자·모음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자 음〉

p	p˥	t	t˥	tʃ	k	k	
p'		t'		tʃ'	k'		?
pʰ		tʰ		tʃʰ	kʰ		
		s					h
		s'					
m		n			ŋ		

1

〈모 음〉

단모음

중모음

/j/ j^u

je $j^ə$ j^o

jɛ j^a

/w/ wi

we wə

wɛ wa

/ɯ̯/ ɯ̯i

① /ㅂ/

[p] : 어두에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고(예. 밤[pam], 불[pul], 바다 [pada]), 어중간의 무성자음 다음에도 쓰일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대체로 경음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b] : 유성음 사이에 나타난다. (예. 밥물[pabmul], 고비[kobi])

[β] : 입안 통로(aperture) 3도 이상의 유성음 사이에서 [b]와 자유변이에 있다. 이것은 [b]도 동일하다. (예. 부부[puβu], 우비[u:βi], 말본 [ma:lβon] 이상의 세 소리는 모두 음절 첫음으로 쓰인다.

[p˺] : 음절 끝음에서만 나타난다. (예. 밥[pap])

우리말에서 /ㅂ/ 음소와 비슷한 음소는 /ㅃ/와 /ㅍ/, 그리고 /ㅎ/와도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ㅂ/의 변이음 [β]와 /ㅎ/의 변이음 [ϕ]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ㅂ/ : /ㅃ/(예. /pul/(불) : /p'ul/(뿔), /kopi/(고비) : /kop'i/(고삐), /ㅂ/ : /ㅍ/(예. /pul/(불) : /p^hul/(풀), /kalpi/(갈비) : /kalp^hi/(갈피)), /ㅂ/ : /ㅎ/(예. /i:pu/[i:βu](이

부) : /i:hu/[i:ɸu](이후))[2]등은 각각 준동음어로 두 소리의 대립은 음소적으로 변별적이다.

② /ㄷ/

[t] : 어두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고(예. 단서[ta:nsə], 돌[to:l]), 무성자음 다음에도 나타나는듯 하나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음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p]와 같다.

[d] : 유성음 사이에 나타난다.(예. 도덕[to:dək˺], 보답[po:dap˺]). 이상의 두 변이음은 모두 음절 첫음으로만 나타난다.

[t˺] : 음절 끝음으로만 나타난다.(예. 옷[ot˺], 곳[kot˺]).

다른 음소와의 대립은 다음과 같다.

/ㄷ/ : /ㄸ/(예. /tal/(달) : /t'al/(딸)), /ㄷ/ : /ㅈ/(예. /tali/(다리) : /tʃali/(자리))의 두 음소는 변별적이고, /ㄷ/ : /ㄹ/(예. /tʃatu/(자두) : /tʃalu/(자루))는 음소적 대립이며, /ㄷ/ : /ㅌ/(예. /tal/(달) : /t^ha:l/(탈), /to:k'i/(도끼) : /t^hok'i/(토끼))는 매우 비슷한 환경에서 대체될 수 있는 점으로 보면, 이 두 소리의 대립은 음소적이다. 그것은 이 두 소리가 그 다음 자음의 길이에 따라서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③ /ㄱ/

[k] : 유성음 사이에는 나타나지 않고 음절 첫 소리에 나타난다.(예. 굴[kul], 김[ki:m]) 예에서도 보이듯이 /i/나 /e/와 같은 front vowel 앞에서는 전연구개음으로 나고, 다른 모음 앞에서는 중연구개음이 된다.

[g] : 유성음 사이에서 나타난다.(예. 감기[kamgi], 고기[kogi], 아기[agi]) 다른 모음과 어울리는 것은 [k]와 같다.

[k˺] : 음절 끝음에만 나타난다.(예. 각자[kak˺tʃ'a], 격전[kjək tʃ'ən], 막바지[mak˺padʒi]

[ɣ] : 입안 통로 3도 이상의 유성음 사이에서 [g]와 자유변이되며(예. 먹어[məɣə], 바가지[paɣadʒi]), 모음사이나 또는 [l]과 모음사이에서 나타난다.(예. 달구지[talɣudʒi]).

이 음소와 가까운 소리로서는 /ㄲ/, /ㅋ/, /ㅈ/를 들 수 있는데 다음

---

[2]음소적 대립을 가져오는 것은 음소표기와 음성표기를 같이 실었다.

과 같은 준 동음어의 존재로, 그 대립은 모두 음소적이다. (예. /ㄱ/ : /ㄲ/－/kata/(가 다) : /k'ata/(까 다), /ㄱ/ : /ㅋ/－/kal/(갈) : /kʰal/(칼), /ㄱ/ : /ㅈ/－/kata/(가다) : /tʃata/(자다))

④ /ㄹ/

[l] : 어말이나 자음앞에(모두 음절 끝음), 또는 모음 사이에서는, 뒤의 소리가 /i, j/이 아닐 때 겹침으로 나타난다. (예. 발[pal], 달라[talla], 굴레[kulle])

[ɾ] : 모음 사이에서 단독으로 나타난다. (예. 우리[uɾi], 다리[taɾi])

[r] : 강조된 발음에서, 또는 노래를 부를 때 [ɾ]와 자유변이에 있다. (예. 머리[məri], 가루[karu])

[ʎ] : 모음 사이에서, 뒷 모음이 /i, j/인 경우에 겹쳐져서 나타난다. 국어에서 이 음소는 어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음소에 가까운 소리는 /ㄷ/, /ㄴ/정도인데, /ㄹ/ : /ㄷ/, /ㄹ/ : /ㄴ/의 대립이 다 음소적이다. (예. 흘리다[həʎʎida], 달리다[taʎʎida], 달력[taʎʎjək])

⑤ /ㅈ/

[tʃ] : 어두에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고 어중에서는 무성자음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경음화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ts] : [tʃ]와 자유변이에 있는데 방언에 따라 차이가 난다.

[dʒ] : 공명음 사이에서 나타난다.

[z] : 모음 사이에서 [dz]와 자유변이에 있는데 [dz]보다 [z]가 일반적이다. 이 음소는 /ㄸ/, /ㅌ/, /ㅉ/, /ㅊ/, /ㄲ/, /ㅋ/와 같이 어두에만 나타난다.

⑥ /ㅅ/

[s] : 모음 [a, ə, o, u, e, ɛ, ï, ɸ]앞이나 반모음 [w] 앞에 나타난다.

[ʃ] : 모음 [y]나 반모음 [j] 앞에 나타난다.

2. 3 모음 변이음

(1) 영어의 경우

① The high front vowel, /i/는 mid front vowel, /e/처럼 여러가지 형태의 변이음이 있는데(예. raised, lowered, fronted, retracted, nasalized,

lengthened), bit, bid, window, will, sister 등에서 볼 수 있다.

② The mid central vowel, /ə/도 [ʌ], [ə], [ɐ]등의 변이음을 가진다. [ʌ]는 cut, bud, rung, hurry 등에서의 음절 모음이 되고 여러 종류의 [ə]는 강세 없는 위치에 자주 나타나며(예. general), [ɐ]는 주로 이중모음의 음절 핵음에서 들을 수 있다.

③ The low back vowel, /ɔ/는 여러 종류의 [ɒ], [ɔ] 변이음이 있다. (예. not, top, caught, autumnal) 이것은 water 안의 모음에도 보이며, 특히 /f, s, θ/ 앞에서 "short-o words"의 음절을 이루는데 주로 American English 경우다. (예. Goth, fauces)

④ The mid front vowel, /e/도 /i/처럼 변이음이 다양한데(raised, lowered, fronted, retracted, nasalized, partially lengthened) bet, bed, bend, bell, best 등에서 볼 수 있다.

⑤ The high back vowel, /u/도 다양한 [ʊ]의 형태로서 변이음을 가지는데 push, pull, put에서 나타난다. 이 음은 today와 같이 강세없는 위치에서도 보인다.

⑥ The mid back vowel, /o/의 변이음도 다양하다. (lax, fronted, raised, lowered) 미국영어에서 이 음은 드물거나 상실되었는데 강세를 받지 않는 위치나 이중모음에서만 나타난다.

(2) 국어의 경우

① /ㅣ/

이 음소는 그 환경에 따라 바뀌는 일이 별로 없으나 다만 무성자음 사이에서는 무성음이 되는 일이 있다. 이 음소와 가까운 소리는 /ㅔ/, /ㅟ/, /ㅡ/이다.

/ㅣ/ : /ㅔ/－/tʃi/(치) : /tʃe/(체)의 준동음어로, 이 두 음의 대립은 음소적이다.

/ㅣ/ : /ㅟ/－/tʃi/(치) : /tʃy/(취)의 준동음어로 이 두 음의 관계는 음소적 대립이다.

/ㅣ/ : /ㅡ/－/kil/(길) : /kɨl/(글)의 준동음어로 두 소리는 음소적 대립이다.

② /ㅓ/

[ə] : 장음일 경우에 [ʌ]와 배타적으로 나타난다. (예. 연기[jə:nki] (演技))

[ʌ] : 단음일 경우에 [ə]와 배타적으로 나타난다. (예. 연기[jʌnki] (煙氣))

그러나 이 변이음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서는 길이 대립이 변별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 변이음도 잘 구별되어 쓰이지 않는다. 이 음소와 가까운 음은 /ㅡ/, /ㅚ/, /ㅔ/, /ㅗ/, /ㅏ/인데 다음 준동음어로 이 대립은 모두 음소절이다.

/ㅓ/ : /ㅡ/－/kəli/(거리) : /kïli/(그리)
/ㅓ/ : /ㅚ/－/tə:ni/(더니) : /tφ:ni/(되니)
/ㅓ/ : /ㅔ/－/nə/(너) : /ne/(네)
/ㅓ/ : /ㅗ/－/tə:lta/(덜다) : /to:lta/(돌다)
/ㅓ/ : /ㅏ/－/məkta/(먹다) : /makta/(막다)

③ /ㅏ/

이 음소는 그 환경에 따라 바뀌는 일이 별로 없다. 혹은 /a:nninta/(안는다)의 /ㅏ/는 낮은 뒷모음이고, /anninta/(앉는다)의 /ㅏ/는 낮은 앞모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일반 발음으로는 /ㅏ/는 그러한 변이음을 가지는 것 같지 않다. 이와 가까운 소리는 /ㅐ/와 /ㅓ/ 정도인데, 모두 음소적으로 대립한다.

/ㅏ/ : /ㅐ/－/k'ata/(까다) : /k'ɛta/(깨다)
/ㅏ/ : /ㅓ/－/tʃadʒu/(자주) : /tʃədʒu/(저주)

④ /ㅣ̆/

[j↓] : [i]와 가까운 자리에서 다른 모음자리로 옮아가는 소리로서, 모음앞에 나타나는 변이음인데 그 다음의 모음의 위치에 따라 옮아가는 과도(glide)가 여러가지로 달라진다.

[j↑] : 다른 모음자리에서 [i]의 자리로 옮아가는 변이음인데 모음 뒤에서 [j↓]와 배타적으로 나타난다. 이 변이음은 「의」를 [ïj]로 발음할 때만 나타난다.

⑤ /Ť/

[ɥ] : [i]모음 앞의 변이음이다.

[w] : 다른 모음 앞에 나타나는데, 이어나는 모음의 자리에 따라 옮아가는 과도가 달라진다.

2. 4 변이음 규칙의 수정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음소의 바뀜은 규칙적이라 하는데 그중 음소의 변이에는 몇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 변이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임의적인 것이 있다. 둘째, 변이는 약한 음에서 많이 일어난다. 세째, 변이는 규칙의 적용이 한 음소에만 한정되는 것이 있는 반면, 여러 음소들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제 변이음 규칙중 rule of flapping을 예로 들어 변이음 규칙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느 정도의 일반성을 포착해 보고자 한다.

전형적인 flapping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t \rightarrow ɾ / v ___ v$
(모음 사이의 /t/는 flapping 된다)

그런데 rider[raʸJɐ]나 want to[wəɾə]등에서도 flapping되므로 (1)을 확장시켜 본다.

(2) $$\left\{\begin{matrix} n \\ t \\ d \end{matrix}\right\} \rightarrow J \ / \ v ___ v$$
(모음 사이의 /n, t, d/는 flapping 된다)

그러나 (2)는 몇가지 수정을 요한다. 수정이 rewrite rule formalism에서는 매우 어색하지만 syllable structure를 언급할 수 있다면 매우 자연스럽다. 그런데 국어의 /t/는 [d]로만 나타나며 [ɾ]이 모음사이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flapping이 설명되지 않는다. (예. 우리[uɾi], 다리[taɾi], 가루[kaɾu]) 왜냐하면 음소적 대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 하나[hana] ; 하라[haɾa], 고도[kodo] : 고로[koɾo]) 우선 (2)의 환경을 확장함으로서 party나 torn apart의 탄음화도 설명해 낼 수 있도록 하자.

(3) $$\left\{\begin{matrix} n \\ t \\ d \end{matrix}\right\} \rightarrow J \ / \ v(c) ___ v$$

(3)은 탄음앞에 /r/이 나타나는 것이나(예. party→par[ɾ]y), 탄음앞에 /n/이 나타나는 것(예. winter→wi[ɾ]er)은 설명할 수 있지만 actor→ac[ɾ]or처럼 /k/가 탄음앞에 오지 않는 것은 이해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phonemic characterization을 도입시켜 공명도가 높은 /r/과 활음이 마찰음이나 폐쇄음에 비해 탄음앞에 더 잘 나온다는 표현을 해 보자.

(4) $$\left\{\begin{array}{c} n \\ t \\ d \end{array}\right\} \rightarrow \text{ɾ} / \begin{array}{c} v(c) \\ [+\ \text{sonorant}] \end{array} ___\ v$$

그런데 (4)는 탄음앞에 나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없다. 가령, 음소 /n/은 /t/탄음 앞에서는 나타날 수 있으나 /d/탄음 앞에서는 나타날 수 없지 않는가. 국어에서는 공명도가 높은 유성음 등에서도 역시 대립을 가져온다.(예. 경사도[kjəŋsado] : 경사로[djŋ saro], 갈대[kaldɛ] : 갈래[dalrɛ]) 따라서 optional consonant(C)는 phonetic characterization에서 [- constriction]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5) $$\left\{\begin{array}{c} n \\ t \\ d \end{array}\right\} \rightarrow \text{ɾ} / \begin{array}{c} v(c) \\ [-\ \text{constriction}] \end{array} ___\ v$$

이것으로 수정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변이음 규칙은 word boundary에 민감한 것이어야 함은 잘 알려져 있다. 최소대립 a tease와 at ease는 단지 word boundary 위치에만 다른 것이므로 (5)는 (6)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6) $$\left\{\begin{array}{c} n \\ t \\ d \end{array}\right\} \rightarrow \text{ɾ} / \begin{array}{c} v(c) \\ [-\ \text{constriction}] \end{array} ___\ (\#)v$$

(6)은 /t/가 at ease에서와 같은 word boundary 앞에서 flapping 되고 어중에서도 flapping 되지만(예. butter), a tease와 같이 word boundary 뒤에서는 탄음화되지 않음을 잘 설명해 낸다.

이 수정은 stress를 염두에 두면 두가지 규칙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7a) $$\left\{\begin{array}{c} n \\ t \end{array}\right\} \rightarrow \text{ɾ} / \begin{array}{c} v \\ [+\ \text{stress}] \end{array} \begin{array}{c} (c) \\ [-\ \text{constriction}] \end{array} ____\ \begin{array}{c} v \\ [-\ \text{stress}] \end{array}$$

⎩ d ⎭

(word internally)

(7b) ⎧ n ⎫→ ɾ/v (c) ______ #v
⎨ t ⎬ [- constriction]
⎩ d ⎭ (across word boundary)

stress condition을 고려해야 10, 20 stress contours에서는 flapping이 가능하고(예. party, strategy, automobile, international), 01, 02, 12 stress contours에서는 flapping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낼 수 있다. (예. strategic, adaptability, veto)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국어에서는 모음사이를 제외하고는 flapping 현상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국어의 경우는 영어의 경우와 규칙수정도 다르다. 물론 찰나(刹那)→찰라[tʃaɾa], 춘란(春蘭)→출란[tʃulɾan] 등 자음접변현상으로 인한 것과 그밖에 속음이나 습관음, 또는 방언에서만 일어나는 몇몇 예외가 있지만 일반성(generalization)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3. 마무리

음성 표현은 실제 소리에 한걸음 접근한 것 일 뿐 여전히 추상적인 것이다. Apple이란 단어를 보자. 무한히 많은 실제 사과가 있다. 우리는 a-p-p-l-e와 같이 선형적(linear)으로 인공절차를 배치하여 모든 류를 apple이라는 단어가 내는 물리적 음성기록(physical phonetic record)으로 가지게 된다. 나아가 체계적 음성표현(systematic phonetic representation)[ǽpl̩], 더 나아가 음소표현(phonemic representation)/æpl/이 도출된다. 그런데 체계적 음성표현과 음소표현은 두 영역이 매우 가까운데 더 추상적인 것을 개발해야 함을 느낀 나머지 생성 음운론에서는 체계적 음소표시(systematic phonemic representation)를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변이음을 이용하여 rule of flapping 현상이 수정되어 가는 경우를 일견했는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현상은 국어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설명할 수 있었다. 그것은 두 언어의 음성적, 음운적 차이에서 기인함은 물론이다. 변이음이 그 수에 있어서 거의 무한정한 것도 어떤 추상적인 실체를 두고 개인이나 언어사회집단이 나름대로의 음성을 익혀감에 연유한다. 음 변화규칙은 부분적으로 어느 특정한

현상에 대해 각각 경우에 따라 거기에 맞는 설명은 있을 수 있지만 음변화하는 현상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원칙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Bibliography

남기심, 이정민, 이홍배 (1984) **언어학 개론**, 개정 9판, 서울 : 탑출판사

이병건 (1976) **현대 국어의 생성음운론**, 서울 : 일지사

이정민, 배영남 (1987) **언어학 사전**, 서울 : 박영사

허웅 (1986) **국어 음운학**, 서울 : 샘문화사

Allerton, D. J. (1979) *Essentials of Grammatical Theory*. Routledge Kegan Paul : London.

Broderick, J. P. (1975) *Modern English Languistics*. Crowell Company : N. Y.

Church, K. W. (1983) *Phrase-Structure Parsing* : MIT : Endiana.

Crystal, D. (1971) *Linguistics*. Penguin Books.

_____ (1985)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Basil Blackwell Ltd. : Oxford.

Francis, W. N. (1958) *The Structure of American English*. The Ronald Press Company : N. Y.

Hyman, L. M. (1975) *Phonology*. Holt, Rinehart and Winston : N. Y.

Lass, R. (1984) *Phonology*. Cam. Uni. Press : Cambridge.

Robins, R. H. (1964) *General Linguistics*. Longmans : London.

Schane, S. A. (1973) *Generative Phonology*. Prentice-Hall : New Jersey.

Abstract

A Study of the Rule of Flapping with Allophones

Kang—woo Chun

Even though the phonetic representation is a kind of approach to describe the real sound, it is still abstract entity. As the systematic phonetic representation and the phonemic representation is very close each other, the generative phonologists propose the more abstract description method; the systematic phonemic representation.

This study surveys one phonemic phenomenon of the rule of flapping with allophones. The rule of flapping doesn't cover all the languages; especially it is very restricted to the application to the Korean language.